

이슈브리프

No. 2025-05(S)

MAASGA: 미국과 동맹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피터 리

연구위원

2025-09-05

서론

한국의 투자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동시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을까? 본 이슈브리프는 미국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인 조선업 재건과 전방 지역 유지보수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으로 한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재정적 투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K-조선업의 역량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ASGA: Make American and Allied Shipbuilding Great Again) 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이슈브리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직면한 장기 산업 재건과 단기 유지보수 수요 간 딜레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최근 한미 조선 협력의 발전을 검토한다. 셋째, 2025년 7월 발표된 한미 MASGA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넷째, 금전적 투자만으로 미국 조선소들의 건조 능력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협력 전담 컨트롤 타워 구축,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조선업 기여 반영, △미국의 조선업 관련 법·규제 개정을 위한 호주,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간 협력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1. 미국 조선업의 딜레마: 재건과 유지보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공업 재건 전략의 일환으로 조선업 부흥을 집권 2기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2025년 3월 연방의회 합동 연설에서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선언했고, 4월에는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업 재건 의지를 보였다. 조선업은 격화된 미중 해군 경쟁으로 인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마이크 월츠(Mike Waltz)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의회 재직 시절 조선 및 해운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해군장관에 기업 출신 인사를 임명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 군비경쟁에서 우위 확보와 조선업 재건이라는 긴밀히 연관돼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충돌할 수 있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2위 상선 건조국이자 신흥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견제 대상인 동시에 유지보수 협력의 잠재적 파트너로 떠올랐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5월 대선 유세 중 “한국이 우리 조선업을 빼앗아갔다”고 했으나, 같은 해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와 2025년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선박 건조 및 보수수리 분야에서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렇듯 동맹국을 ‘경쟁자’이자 ‘자산’으로 동시에 규정하는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정책 결정은 그가 지난 3월, 미 해경을 위해 쇄빙선 15척을 국내에서 건조하지 않고 핀란드에서 구매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한미 조선업 협력 개시

미국 조선업 시장은 「존스법(Jones Act)」,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번즈-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 등 보호주의 입법을 통해 역사적으로 보호되어왔으나, 전략적 긴급성으로 인해 보호 장벽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방부는 조선소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운영(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을 확대해왔다. 2024년에는 HD현대, 한화오션 등 주요 한국 조선사들이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aster Ship Repair Agreement)을 체결해 수송함 및 보급함 MRO에 착수했다. 동시에 미국 조선사 및 방산 기업과 협력을 구축해 미국 내 상선 건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함 건조 분야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이 흐름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한미 조선협력의 진전을 상징한다.

3. MASGA 분석

7월 30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해 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MASGA'라는 이름으로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에 할당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며,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3,500억 달러 투자"의 일부라고 해석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구체적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금액은 보증 한도에 해당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직 양국 간 서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협상 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MASGA는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사랑한다"는 발언과 함께 한국산 선박 구매와 미국 내 건조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기업도 조선업을 포함한 전략 산업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국내 대표 조선사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MRO 사업을 추진하며 MASGA의 본격적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4. MAASGA: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단순한 금전적 투자라고 하더라도, 자금 투입만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실제 미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조선 산업 기반에 58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나, 로저 위커(Roger Wicker)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오늘날 미 해군에 수조 달러(a zillion dollars)를 투입하더라도 미국은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장 큰 가치는 단순히 미국의 소규모 조선소에 대한 투자나 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을 수 있다. 역대 해외 조선소 인수 사례는 성과가 엇갈려 왔으며, 이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급망, 즉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에 있다는 것과, 이를 해외에서 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미국 조선소뿐 아니라 동맹국 조선소에서도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생산량을 신속히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하거나 제3국 소재 계열사 도크를 추가 확보해 미국 외 해외 수주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모두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정책 제언

본 이슈브리프는 한미 조선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은 상업 계약이나 양자 무역 협력 수준을 넘어, 동맹 간 조선 및 유지보수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명확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측은 지난 10개월간 양자 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여러 부처와 기업이 동시에 관여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내에 해양산업역량국(Office of Maritime and Industrial Capacity)을 신설해 미국의 수요를 식별하고, 이를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협상 과정에 반영하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해당 부서의 잇따른 인력 이탈과 국가안보회의에서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으로의 이관으로 한국도 국가안보실 내에 협상 총괄 부서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둘째, 한국은 MASGA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조선 관련 기여가 동맹 안보 분담에 포함돼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MRO 및 건조 작업과 한국의 미국 내 조선소에 대한 투자 모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전력 유지에 기여하는 요소로 인정돼야 한다. 대형 무인수상함(Large Unmanned Surface Vehicles)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도 한국이 미 해군의 단기적 긴급성과 장기적 수상함 건조 수요 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분야다. 또 한국이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해양세력 균형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한국은 다른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백악관과 미 의회를 상대로 조선 및 유지보수 협력에 대한 법 개정을 설득해야 한다. 현재 미 해군 함정의 해외 MRO 수행 범위와 기간에는 법적 제약이 있으며, MASGA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 행정·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법 개정 사례로, 2023년 미 의회는 호주·영국·미국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위해 미국 잠수함이 호주 및 영국 조선소에서 MRO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해군법(10 U.S. Code § 8680)을 개정할 바 있다.

군함 건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법(10 U.S. Code § 8679) (b)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이익'을 이유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 수상 전투함 건조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대통령 면제(presidential waiver)를 발동할 수 있다. 또 MASGA를 계기로 한국은 미국과 중단된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협상을 재개하고 「미국산우선구매법」 일부 조항의 면제를 받는 '적격국(qualifying country)'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 법(10 U.S. Code § 4801)에 따라 운영되는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공동 방위산업 협력 체제인 국가기술산업기반(National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NTIB)에 우리나라가 '국내 공급자'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상선 건조 분야에서도 최근 발의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이 한일 조선업체를 「존스법」의 예외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 면제(ally waiver)'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기존 규제에서 일부 면제를 받은 다른 동맹국들과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의 법 개정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보다 포괄적인 동맹 조선업 협력을 위한 군법 개정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결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여러 동맹국의 투자 및 산업 지원이 필요한 중대한 과업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세력 균형을 조성할 시급한 과제에 있어 미국 산업의 부활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본

이슈브리프는 미국이 동맹국,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재건과 전시 유지보수라는 상충된 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미국이 쇠퇴한 산업 기반을 장기적으로 재건하는 동안, 한국과 동맹국은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단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곧 세계적 수준의 한국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다.

저자

피터 리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이자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 동맹체제, 한국과 호주의 외교안보 등이다. 최근 해양안보 관련 연구 저서로는 "인도-태평양 동맹 조선산업"(아산리포트 2024년), "한국은 오퍼스 필러 2에 가입해야 하는가?"(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12월), "한미 방위산업협력에서 상호 신뢰와 열망의 조화"(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5월), "왜 미국 해군력은 아시아 동맹국이 필요한가"(워온더락 2024년 1월), "여러 손: 동남아 해양안보 복원력에 호주-미국 동맹 기여"(시드니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리포트 2022년 11월)가 있다.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전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5-07).

("MAASGA: Making American and Allied Shipbuilding Great Again,"
https://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_eng&wr_id=253)